

## 1. 합격 정보

1 차 시험 점수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법	민집법, 상업등기법	부등법, 공탁법
	68	80	56	58
2 차 시험 점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소법, 민사사건서류	부등법, 등기신청서류
	51	25.5/ 33.25	41.5/ 13.5	39/ 16.45

## 2. 합격자 학습 정보

1차 시험 응시 횟수	( 4 ) 회
2차 시험 응시 횟수	( 3 ) 회
총 수험 기간	( 60 ) 개월
1차 시험 준비 방법 (중복 선택 가능)	독학
2차 시험 준비 방법 (중복 선택 가능)	학원
법무사단기 수강 이력 여부	있음

## 3. 합격 후기

[2024년 합격수기] 단기 합격은 하지 못한 합격자의 반성문

### 주제1. 수험 시작 동기와 수험 기간

- 어떻게 수험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합격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등

1. 합격수기를 쓰기까지 많은 시간 갈등하였습니다. 저의 수험 기간은 총 5년이 걸렸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것도 아니었기에 부끄러웠습니다. 허나 내 합격수기 참고하는 누군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단기합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용기를 내었습니다.
2. 저는 81년생으로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20대 시절 사법시험에 응시한 바는 없으며, 짧은 시간이지만 자영업을 운영하였던 이력이 있습니다. 30대 시절 10년간 회사생활을 하였으나 중년 이후 안정적인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 판단하였기에 법무사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마흔을 앞둔 30대 끝자락 2019년 10월 (법무사 민법 강의는 강의 개수와 가격이 부담된다는 판단에) 법원직 9급공무원 민법 강의를 수강하는 것으로 법무사시험 수험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법무사시험이 이런 시험이구나 체감해 본다는 마음으로 2020년 1차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직장병행은 무리라 판단하였고 건강이슈도 있었기에 그 해 가을 퇴사하여 전업수험생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 주제2. 나만의 학습 방법

- 나만의 학습계획 수립법 / 스터디, 서브노트 활용법 / 하루 공부 계획 등

1. 저는 당시 학원강의는 무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두꺼운 기본서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에 인강이나 실강 모두를 선택하지 않고 신림동 고시촌 서점에서 과목별로 객관식 교재를 고른 후 해설을 정독하는 방법으로 1차를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참으로 무지하고 비효율적인 공부방법이었습니다. 각 과목별 객관식교재 페이지를 환산하여 하루에 몇 페이지씩 계획을 세워 회독을 돌리려 계획 했으나 대학시절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민사집행법을 포함하여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한 권을 완독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 오래걸렸고 8과목 압도적 양에 짓눌려 시험을 직전 앞두고 자포자기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2021년 1차 시험에 불합격하였습니다.
2. 이러한 저의 방구석 독학방식은 2022년 1차 대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법, 상법, 부동산등기법은 객관식교재 해설지를 정리한 서브노트를 만들었으나 서브노트를 정리하는 데 시간만 상당히 소비 되었을 뿐 회독을 돌리는 시간을 오히려 확보하기가 어려워졌고 기존 교재에 더하여 특강 인강을 수강하고 모의고사를 구매하여 풀었으므로 시험이 다가올수록 소화해야 할 양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많아졌습니다. 시험이 한달도 채 안 남은 시점 민사집행법 객관식교재를 푸는데 해설 위주로 공부한 결과 해설지를 보지 않고서는 어느 문제도 정답을 전혀 고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 이번 시험도 망했구나' 극도의 초조함으로 집 거실을 뱅뱅돌았던 2022년 어느 여름날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그래도 2021년과 달리 이번 시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

히 엉망이었으나 포기하지 않았기에 2022년 1차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3. 생동차 기간은 타 학원 동차반 인강 수강을 하였으나 2차 수험장에 다녀왔다 뿐이지 공부 방향조차 잡지 못한채 기득권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기득권 시험 시에 2차란 이런 시험이구나 절실히 깨닫게 되었으니 참으로 미련했고 기득권 시험에 실패한 것은 당연합니다. 심지어, 경쟁자들은 예비순환부터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 착실히 따라가고 있는데 저는 페트라를 보러 요르단으로 장기여행을 떠날 정도로 정신 나간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기득권 준비를 법무사시험 교재가 아닌 변호사시험 교재로 독학하였습니다. 법무사시험에 왜 변호사시험교재로 대비하려했는지 지금 돌이켜 보면 이 선택도 제 수험기간을 연장한데 큰 일조를 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당시 여전히 학원을 불신하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2차는 모의고사를 치러보는 게 낫지 않겠냐는 단순한 생각에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2순환부터 법무사단기 실강을 수강하였습니다. 민사서류와 부동산등기신청서류 실강 또한 수강하였으나 민사서류의 경우 모의고사에 응시조차 불가능한 실력이란 것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은 채 도중하차 하였습니다. 다행히 뒤늦게나마 법무사단기를 연을 맺고 박효근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올바른 2차 대비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오영관 선생님께서 제가 수강하지 않은 부동산등기법 과목까지 세심히 챙겨주시어 선방했으나 방대한 민법 과목 특성 상 주요사례를 숙지할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였으므로 민법 과락으로 2023년 2차 시험에 불합격하였습니다.
4. 저는 재동차기간 법무사단기 2차 종합반 실강을 수강하였습니다. 건강문제로 장시간 의자에 앉아 암기사항을 현출하는 방식의 공부방법은 저에게 무리라 판단했습니다. 차선택으로 실강 수업시간에 최대한 집중하여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고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판례들은 학원을 오가는 시간이나 운동 시간을 이용하여 주요 문구를 눈에 바르는 식으로 절충하였습니다. 2순환까지는 모의고사를 거의 빠지지 않고 응시하였고 2차 시험을 직전 앞 둔 막바지에는 수험 기간 동안 모아둔 모의고사들을 복습하는 방법으로 갈무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박효근 선생님 관리반에서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신청서류는 오영관 선생님 관리반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1차 시험은 시험을 약 두 달 앞두고 대비하였습니다. 두 달간은 2차 시험준비를 놓게 되어 결국 박효근 선생님 관리반은 완주를 하지 못했으므로 이 부분은 선생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다행히 도박에 가까웠던 1차 시험을 패스하였으나, 훨씬 더 크나큰 2차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무거운 중압감에 바로 2차대비에 돌입하지는 못했고 상당 시간을 허비한 후 겨우 학원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래도 2차 전 과목 법무사단기 커리큘럼을 따라 일년 동안 꾸준히 달려온 결과 2024년 2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 주제3. 과목별 학습 방법 및 고득점 팁 & 과목별 법무사단기 강의 추천

- 과목별 공부법 / 취약 과목 극복법 / 과목별 학습 비중 / 과목별 추천 강좌 등

#### 1. 민법

민법은 박효근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꾸준히 따라갔으므로 광활한 민법의 바다에서 익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직렬 기출 위주로 중요판례를 숙지하는 가운데 민법에만 치중되지 않고 타 과목들과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효근 선생님의 사례집이 법무사 2차 시험에 가장 최적화된 수험서라 판단합니다. 만약, 직장병행 등으로 시간이 없으신 분이려면 사례집 독학 시 너무 많은 시간 소요가 예상되므로, 법무사단기 1순환이나 2순환 중 한 개 순환만이라도 강의를 수강하시어 주요 사례 풀이 과정을 이해 하시되, 그 중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중요 판례는 철저히 숙지하는 식으로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정규 강의가 도저히 여의치 않으신 분이라면 박효근 선생님의 특강 시 3순환 자료 등이 총망라 되어 있으므로 이를 꼭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2.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전략 과목이 되어야 하므로 사례 내 주요 판례뿐만 아니라 예비순환 시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판례들은 잘 체크해 두었다가 시험 직전에 꼭 모두 다 리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시험을 직전 앞두고 포기하는 부분이 없도록 다수당사자소송 등 난이도가 있는 뒷부분과 기판력 등 정형화된 중요 논제는 거의 기계적으로 배점에 맞추어 분량을 뽑아낼 수 있도록 2순환까지는 충분한 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규 과정 강의를 들으실 시간이 없으신 분이라면, 박효근 선생님의 2023년 민사소송법 사례 특강을 추천드립니다. 민사소송의 앞 뒤를 아우르며 총정리해주는 강의로 개인적으로 박효근 선생님의 강의 중 명강으로 꼽는 강의입니다.

#### 3. 민사사건관련서류

민사사건관련서류는 비록 30점 분량이지만 저는 이 과목이 법무사시험 합격의 바로미터가 되는 과목이라 여깁니다. 만약, 40분 내 정확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인용될 적합한 판례를 담아 형식을 완비할 수 있다면 그 분은 이미 합격에 상당히 가까이 와 있다고 봅니다. 김지안 선생님이 제공하신 변호사기출 등 자료들은 민법에 출제 가능성 또한 높으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이 과목만은 무리하시더라도 인강보다는 실강을 수강하시어 만드시 실전 연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차가 많지 않고 주말에 개설이 되어 있으므로, 직장을 병행하여 공부하시는 분들도 실강 수강이 가능하리라 여깁니다.

#### 4. 부동산등기법

1차도 2차도 중요 문제나 모의고사 중심으로 발췌하여 대비를 하기 보다 기본서를 꾸준히 정독하는 것이 필요한 과목이라 판단합니다. 암기의 압박이 심한 과목이라 저도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도 부족한 점수는 등기서류에서 채우면 된다는 위안을 가지고,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부동산등기법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다고 봅니다. 오영관 선생님의 교재 가독성이 좋으므로, 강의 정규과정을 들으실 시간이 없으신 분이라면, 오영관 선생님 주관식 대비 기본서를 정독하시다가, 오영관 선생님은 최신 예규를 반영한 모의고사 교재를 발간하시므로, 이 교재를 활용하여 출제 예상문제를 가늠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오영관 선생님 특강 시 출제 가능성 높은 문제들을 다뤄 주시므로 이를 참조하시는 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 5. 등기신청서류

재동차 기간 오영관 선생님 수업을 수강하는 외 별도 복습은 하지 않았으나, 정규과정 내 모의고사와 관리반 내 모의고사를 통해 주요 문제를 반복한 것이 이번 난이도가 높았던 등기신청서류시험에 기계적으로 그나마 무언가 채우고 나올 수 있었던 요인인 듯 싶습니다. 민사서류와 같이 반드시 실전연습을 하실 것을 추천드리며, 등기신청서류는 오영관 선생님께서 특히 더 세밀한 첨삭을 해주시니 실감을 수강하시는 분이라면 관리반 모의고사 시 꼭 참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6. 형법

최신판례 외 출제되는 판례 대비를 위해 예비순환 시 선생님이 언급하는 판례들의 판결요지와 정확한 죄책 정도는 숙지되어 있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출제 가능성 높은 각 죄목별 요건 사실 등 주요 사항과 리딩판례는 기계적으로 현출할 수 있도록 대비하되, 변호사시험 교재 등을 참고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절대 지양해야 할 공부방법이라 여깁니다. 최철훈 선생님께서 형법 또한 법무사단기에서 담당하신다고 하니 법무사시험에 최적화된 선생님 커리큘럼을 따라가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 7. 형사소송법

법무사단기 합격수기에서 많은 합격자들이 합격하는 데 최철훈 선생님이 일조하였다고 하여 의아하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그리 배점이 높은 과목도 아니고, 강의를 듣기 전에는 최철훈 선생님 교재가 분량이 상당히 많고, 가독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허나, 최철훈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꾸준히 따라가며, 제가 읽은 합격수기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순환을 거듭하며 형사소송법은 최철훈 선생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겠다 믿음이 갔고 이 믿음은 현실화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강사 선정이 유독 중요한 것이 준비한 판례가 비껴가면 형법처럼 일반론을 서술할 수도 없는 과목이기에 배점이 높지는 않지만 만약 형법에서 실수가 있다면 형사소송법 때문에 과락 위험이 존재합니다. 예비순환은 교재 중심이라기 보다 주요 개념과 사례를 이해를 시키며 반복해 주시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기본서는 참조만 할 뿐 별도 복습은 하지 않아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철훈 선생님의 타율이 높은 이유는 매 순환 주시는 자료에 범원직렬 주관식, 객관식 기술뿐만 아니라 유관직렬 기술, 학계 동향까지 분석하여 최신판례와 예상문제를 담아 주시니 이 범위 내 빠져나가는 문제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규칙을 포함하여 조문양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최철훈 선생님께서 수업시간내 관련 조문들을 모두 찾아 별도 정리해 주시어 별도 조문집을 참조할 필요가 없었고, 최신판례 또한 예비순환부터 출제 가능한 것들을 다뤄 주시며, 순환을 거듭하여 반복, 3순환의 경우 불의타를 대비하여 난이도 있는 예상 문제까지 다뤄 주시니 시험 직전 추가하여 정리할 것의 부담이 상당히 덜했습니다. 하여, 형사소송법은 법무사시험에 최적화된 최철훈 선생님 커리큘럼을 꾸준히 따라가며 안전하게 점수를 획득하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 주제4. 시기별 학습 방법 및 고득점 팁 & 시기별 법무사단기 강의 추천

- 월별 또는 시기별(ex. 문제풀이 과정) 공부 방법 / 시기별 추천 강자 또는 학습 방법 등

1. 법무사 1차 시험의 경우 큰 점수 4개와 작은 점수 4개를 돌리는 밸런스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점수를 열심히 돌리다 보면 다른 점수가 바닥에 떨어지려 하고 이 점수를 살리려 하다보면 전에 돌리던 점수의 속도가 느려지며 바닥에 떨어지려 하는 식으로 시험당일까지 8과목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 과목별 주 교재는 기본서나 요약서나 문제집 중 한 가지만을 정하여 반복해 보되, 정 불안하시다면 오엑스 문제집 정도만 더해 자신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보충하셨으면 합니다. 단, 이해가 되지 않아 진도가 도저히 나가지 않는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은 학원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즉, 1차는 8과목의 강의, 기본서, 문제집, 모의고사 모두를 소화하기 위해 절대 무리한 공부 계획을 수립하지 마시고, 과목별로 가장 효율적인 강의나 교재를 취사 선택하여 최대한 반복할 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저 같은 경우는 4번의 1차 시험을 치르는 동안 단 한번도 학원 모의고사에 응시한 적이 없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모의고사를 치르며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1차의 경우 모의고사가 꼭 필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긴 지문을 소화하고 신속히 선지의 오엑스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은 꼭 모의고사를 치루어야 향상 된다고 보다 평소 공부부를 제대로 했는 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즉, 어설픈 알고 있는 것은 공부부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내용을 쏟아 붓기만 하고, 확실히 오엑스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선지 양을 늘릴 수 없다면 제대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봅니다. 또 하나, 1차 시험이 다가오면 최신 법원직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장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기출, 최신판례, 특강 등을 챙겨야 할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정족수 등의 무수한 암기사항들은 절대 시험 직전으로 미루지 마시고 매일 틈틈이 미리 외워둘 것을 당부드립니다.

3. 저는 재등차기간 1차는 법무사단기 진도별 모의고사와 요약서만으로 대비를 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의 경우 오영관 선생님이 1차 관리반을 운영하시며 주요 기출과 최신 예규사항을 오엑스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이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출제 확률이 높은 문제와 최신판례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사단기 진도별 모의고사는 꼭 강의를 수강하지는 않더라도 문제와 해설을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단, 법무단기 1차 커리큘럼 상 이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 일정이 시험에 임박해 있으므로, 그 전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준비해온 1차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잘 조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 보통 2차 시험의 경우 합격수기를 보면, 모의고사 응시의 중요성, 최고 답안과의 비교를 통한 보완 등을 많이 이야기 합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허나, 이는 내가 답안을 작성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모의고사를 응시하려하는데, 답안을 채우려 하는데, 과연 무엇을 채워드릴까요? 내가 무언가 유의미한 무언가를 채워야 첨삭도 받고, 최고 답안과 비교하며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무언가 유의미한 것을 채운다'가 법무사 2차 전 과정을 통해 포커스를 맞춰야 하 점이라 봅니다. 그 유의미한 것이라는 것은 시험에 나올만한 중요한 판례들일 것이고, 그 주요문구를 현출할 수 있도록 내 머리 속에 저장하는 것은 2순환에서, 3순환에서 할 일이 아니고 예비순환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1순환부터 시작되는 모의고사에 조금이라도 무언가 현출할 수 있고, 최신 판례와 기출이 추가되는 3순환 시 그 암기 양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제5. 후배 예비 법무사들을 위한 학습 팁 및 하고 싶은 말

- 나의 슬럼프 극복 방법 / 체력 관리법 / 수험생활에 도움이 된 꿀팁 / 수험생에게 하고 싶은 말 등
1.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1차 시험은 '정확히 아는 선지 양을 늘린다.' 에 포커스를 맞추어 각 과목 별 한 가지 주 교재를 정해 반복하시고, 2차 시험은 많은 판례를 보기보다, '중요 판례 주요 문구를 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에 포커스를 맞추어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강조하는 중요 판례들을 예비순환부터 철저히 숙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제가 2차 시험에 합격할 수 결정적 이유는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민법 제1문을 빠르게 스킵하고 제2문부터 답을 적어낸 후 남은 시간에 제1문을 대처했던 선택과 제가 준비했던 판례들을 다수 비껴간 형법을 뒤로하고 형사소송법부터 답안을 작성했던 선택 덕분이었다고 확신합니다. 2차 시험은 2일간 치루어지는 퍼포먼스이고, 이 퍼포먼스의 성패는 불의타의 답을 맞추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준비한 판례들을 얼마나 충실히 현출하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미처 준비하지 못한 논제에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단 일초도 허비해서는 안되며, 내가 준비한 판례 현출 시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에 사활을 걸어야만 합니다. 박효근 선생님께서 관리반 첨삭 시 수도 없이 강조하신 부분이며, 엄청난 압박 속에 치러지는 실전에서 거의 본능적으로 판례를 현출할 수 있도록 배점에 맞춰 분량을 조절하여 쓰는 연습을 하여야 한다고 수도 없이 강조하셨습니다.
  3. 배점이 낮다고 서류과목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류과목에서 민사소송법과 부동산등기법의 실점을 만회하여야만 안전한 합격이 가능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민사서류를 나의 법무사시험 합격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 여깁니다. 40분 내 정확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적합한 판례를 포함해 민사서류 형식을 완비할 수 실력이라면 민법에서 일정 수준 이상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법무사 시험에서는 민법이 가장 높은 벽이기에 다른 과목들에서 큰 실점이 없는 한 합격은 자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4. 1차와 2차에 공통된 사항이지만 그 압도적 양에 침몰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시험은 참 그 양이 많고 많으며 많습니다. 민법만해도 총칙, 물권, 채권, 친상까지 실상 나누어 보면 4과목 분량이며, 상법도 총칙부터 해상 항공까지 이렇게 전 범위가 포함되는 시험도 흔치 않습니다. 상업등기도 엄밀히 말하면 비송사건까지 두 과목입니다. 큰 비중이 아니라할지라도 헌법도 아연할만큼 얼마나 덩치가 큰 과목인가요. 각 과목별 기본서가 벽돌만큼 두껍고, 최신판례까지 소화해야 하니 법무사시험은 단순히 많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과목과 양입니다. 많아서 힘겹지만, 많아서 좋은 점은 다른 과목에서, 다른 문제에서 나의 실점을 벌충할 기회가 있다는 점입니다. 1차도 2차도 컷은 50점대입니다. 고득점하지 않아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숨이 조여올 때마다 많아서 좋은 점을 상기시키시면 어떨까 작은 위안을 드립니다. ( 1차시 난해한 민사집행법, 2차시 암기의 부담이 큰 부동산등기법 공부 시 다른 과목에서 벌충하면 된다, 면과락하면 된다는 마인드 컨트롤로 정신건강을 유지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5. 수험기간 중 슬럼프 극복 방법이나 체력관리는 휴식이나 운동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위에 제가 드린 주의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수험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아닐까요. 수험기간 중 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일이지가 나이 상관 없이 슬럼프가 오기 마련이며, 체력은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전력을 다하여 최대한 빠르게 수험생활을 마감하는 것에 사활을 걸 수 밖에요. 기득권을 놓치면 장수생애 진입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세월은 빠르다. 다 지나가는 것이

다. 라는 마음으로 외부와 최대한 차단하고 몸과 정신이 고통스러워도 견디고 나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슬럼프가 찾아 와 몇 달 동안 아예 책을 펼치지도 않고 글자를 단 한 자도 보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수험기간은 길어졌고 몸은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으니 건강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거듭 되었습니다. 제발 저의 전처를 밟지 마시고, 슬럼프가 오는 것도 모르게 몰입하시며 단기에 수험생활을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6. 법무사단기 학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박효근 선생님의 수험서 가독성이 법무사 민법 수험서들 중 압도적으로 좋아 이 분의 강의라면 신뢰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 선택은 옳았습니다. 박효근 선생님께서는 9시 수업 시작이라면 9시 정각에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미리 강의실에 들어와 모든 것을 세팅할 정도로 정확한 분이셨습니다. 박효근 선생님의 교재나 자료에는 오타가 거의 없고, 주요 문구들을 표시한 가독성 높은 편집이 되어 있어 공부의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었습니다. 3순환에서는 기출문제 외 출제 가능한 예상 문제들까지 손수 제작하여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전 순환 내내 성실하고 철저한 박효근 선생님을 보며 나도 훗날 저런 법무사가 되고 싶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박효근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7. 오영관 선생님께서도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시느라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선생님의 노고에 보답하려 관리반 모의고사에 빠지지 않고 응시했던 것이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관리반 학생들에게 비싼 밥도 여러 번 사주시며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오영관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멀리 일산 시험장까지 오시어 격려해주신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8. 제가 합격한 것은 학원선택을 잘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진작 방구석을 탈출하여 법무사단기와 연 땀었다면 1차 1년, 2차 1년 도합 2년은 단축할 수 있었을텐데 지금 시점 후회가 많이 됩니다. 학원을 다니는 내내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강의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어떤 강의는 제공되는 자료 양이 책에 버금가게 상당하였으므로 과연 종이값이나 남을 것인 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법무사단기학원에서 무료로 제공받았던 관리반 서비스는 박효근 선생님과 오영관 선생님께서 개인 시간을 희생하여 학생들을 단 한 명이라도 더 합격시키려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생각해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에 선생님들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민법의 경우 관리반 학생들 거의 전원이 합격하였으므로 그나마 큰 보람이 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원장님께서 수업은 만족하는 지, 혹시 학원이 부족한 것이 없는 지 강의실을 방문해 묻기도 하셨는데 합격연에서도 축하해 주시고 원장님께 좋은 학원을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사단기는 소수정예로 운영되는 실강 특성 상 선생님들과 개인적인 유대관계까지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저는 저는 선생님들 중 한 분의 도움으로 지도법무사님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법무사단기는 저에게 크나큰 행운이었고 앞으로 더더 부흥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9. 지난 5년 세월은 참으로 길고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습니다. 두 번의 수술 이외 이 지면에 담을 수 없는 고난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 인생의 고난이 이 5년 사이에 모두 일어 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던 어둠의 터널 속 아름다운 완주를 해냈다는 것이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고통스런 통증을 앓고 1차를 치루고 난 후 절망스런 귀가길, 차가운 가을공기를 맡으며 초조히 일산행 버스를 기다리던 가을 날, 사법연수원의 쓸쓸한 낙엽들 무엇 보다 신림동 고시촌 곳곳의 추억들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 수기를 읽는 여러분들 모두 수험 기간의 잔상들을 추억으로 돌리고 아름다운 완주를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30기 김O연 법무사의 수기를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작성해 주신 합격 수기는 2025년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예비 법무사님들을 위하여 활용될 예정입니다.